



매주 태호의 방산 Weekly

2026.07.13

강태호 방산 / kth@ds-sec.co.kr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아쉽지만 지상방산 무기의 NATO 추가 진출과는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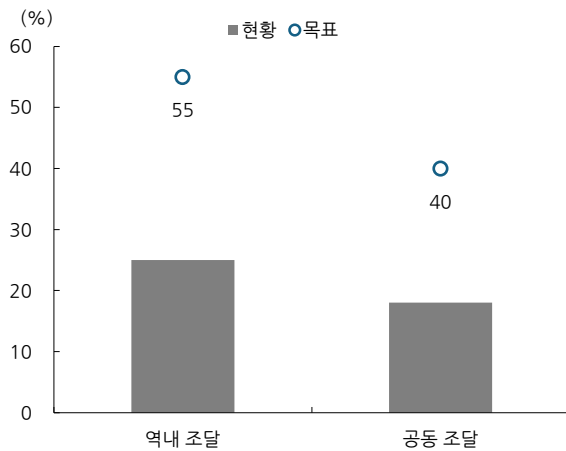
■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지상방산 무기의 NATO 추가 진출과는 무관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7월 6일 차기 잠수함 사업(CPSP)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를 지목
- 패배 요인으로서는 1) NATO 운용체계 편입, 2) 북극 운용 신뢰성, 3) 독일-노르웨이와의 안보 협력 공감대 형성
- 잠수함은 40~50년 이상 운용되는 핵심 전력으로 플랫폼 성능 뿐 아니라 운용 개념·정비 체계·소프트웨어의 NATO 호환성 등이 강조 → NATO 운용국 레퍼런스가 없는 한국 잠수함이 구조적으로 불리
- 반면 유럽 지상무기 시장의 핵심 경쟁력은 여전히 생산능력과 납기 → 따라서 이번 패배를 근거로 한국 지상무기의 NATO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추측으로 판단
- 실제로 이미 다수의 NATO 회원국이 한국산 지상무기를 적극 도입 중 →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을 선택했고 노르웨이·핀란드·에스토니아도 K9 자주포를 운용
- 유럽은 여러 국가가 플랫폼을 단일화하는 '공동조달'을 강조하는데 K9·천무는 유럽 최근 신규 발주 기준 45~50%의 M/S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NATO 내 지상무기 표준을 선도
- 천무 유도탄, K2 전차 및 K9 자주포의 유럽 현지 생산도 준비 중으로 현지화 니즈도 충족 중
- 결론적으로 한국 지상무기는 NATO가 요구하는 '공동조달' 및 '유럽 역내 생산'요건을 만족시키는 핵심 무기체제로 자리잡는 중 → 마켓세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

■ 중동 정세 불안 지속은 한국 방위산업에도 악재, 다만 장기화되지는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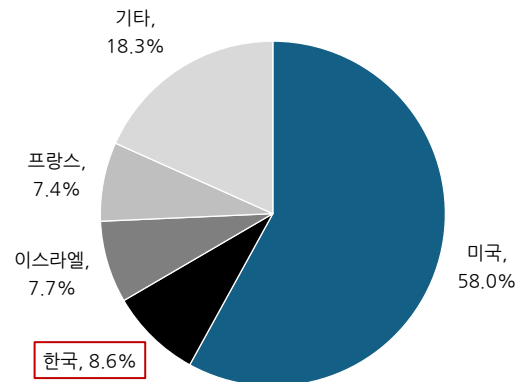
- 미국과 이란은 이달 들어 세 차례 공습을 주고받으며 종전 MOU가 군사적으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
- 특히 7월 11-12일 미국의 추가 공습 이후 이란이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내 미군 시설로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호르무즈 해협 무기한 봉쇄를 선언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
- 이란 전쟁 장기화는 중동 내 다수의 파이프라인(사우디 MNG, 이라크 K2 등)을 보유한 한국 방위산업에 악재로 작용 → 정세가 안정화되어야 해당 계약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가능할 전망
- 다만 미국-이란 간 분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근거는 1) 양측 모두 협상 채널(오만)을 완전히 끊지 않은 점, 2) 미국의 목표가 이란의 정권 교체보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있는 점, 3) 양측 모두 전쟁 장기화가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점
- 또한 이란의 미사일 발사 여력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인근 걸프 국가들의 방공망 강화 니즈는 계속 커질 수 밖에 없음 → 천궁-Ⅱ, L-SAM에 대한 관심 지속 전망
- Top Picks: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그림1 25년 기준 유럽 공동 및 역내 조달 비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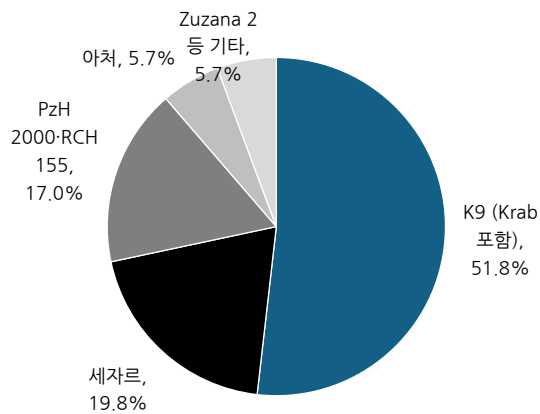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2 2021~2025 NATO 무기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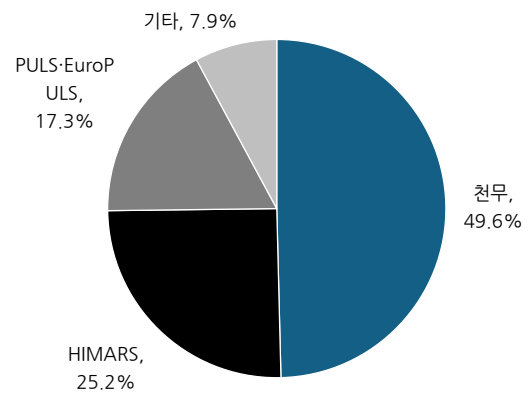
자료: SIPRI,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2017년 이후 유럽 내 신규 자주포 조달 점유율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4 2022년 이후 유럽 내 신규 다연장로켓포 조달 점유율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표1 7월 둘째 주 미국-이란 분쟁 주요 사건 요약

날짜	주요 사건
7/7	호르무즈 상선 공격 → 미국 80여 개 목표 공습
7/7	미국 제재 완화 철회
7/8~9	추가 공습 보복 위협
7/10~11	오만 중재 협상, 호르무즈 개방 갈등
7/12	미국 추가 공습, 이란의 걸프 국가 공격 및 호르무즈 폐쇄 선언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한국 방위산업 주요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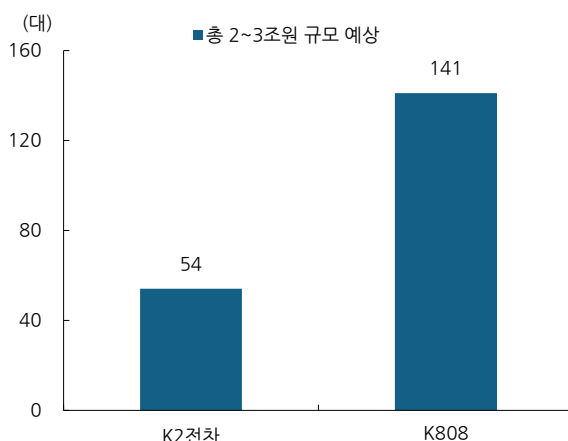
당사 의견은 기울임체로 표시

계약서 쓰기도 전에 배부터 뒀다...현대로템 K2·K808, 페루 전격 상륙

- 11일(현지 시각) 국방 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최종 계약 조인 전 K2 전차 2대와 K808 장갑차 6대를 페루 육군에 선제적으로 인도
- 이는 해발 고도가 수천 미터에 달해 엔진과 현수장치에 극한의 부하를 주는 안데스 산악지대에서 고고도 적응 기동 시험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전술적 포석
- 이번 실물 인도 조치는 양국이 지난 2025년 12월 9일 맺은 총 54대의 K2 흑표(K2 Black Panther) 전차 및 141대의 K808 백호(K808) 장갑차 공급에 관한 기본 협정(Framework Agreement)의 연장선상
- 그러나 기본 협정은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와 방향성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납품 일정, 단가, 법적 조건 등은 본계약을 통해 확정
- 당초 제작사인 현대로템과 페루 국영 방산업체인 파메(FAME S.A.C.)는 2026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본계약 조인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음
- K808 백호 장갑차들은 기존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는 표준형 사양과는 확연히 다른 외형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갑차 전면부 전면 개량(Redesigned Front Hull)과 신형 포탑 레이아웃의 적용
- 현대로템과 페루 FAME S.A.C.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기성품 판매가 아닌, 현지 조립 생산 및 전방위적 기술이전을 골자로 하는 방산 협력 관계로 발전
- 페루는 과거 러시아 및 중국제 전차를 테스트한 뒤 최종 단계에서 도입을 취소했던 전례가 있음
- 본계약 발효 전에 이미 구매국의 요구에 맞춘 최적화 실물을 대령한 만큼 이번 현지 시험평가에서 보여줄 퍼포먼스가 최종 본계약의 도장을 찍을 마지막 열쇠가 될 전망

URL: <https://bit.ly/4fwbnN1>

그림5 K2 페루 수출 개요 예상



자료: 현대로템,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6 페루에 도착한 K2·K808 실물



자료: X,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대통령, '한-나토 방산파트너십 2.0' 제안...“가장 신뢰할 파트너 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
- 먼저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며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함
- 그러면서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제안
- 이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방산파트너십 2.0' 구현을 위한 나토 국가들의 역할에 대해 묻자 "정부 측의 무기·장비 수요가 얼마나 많아지느냐가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답함
-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도 각 국가 단위로 수요를 분산하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내면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마지막으로 "각각의 기업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각 기업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연합도 하고 공동개발, 공동생산을 해 나가지만 전 국가 단위 협력이 결국 기업 간의 협업을 받쳐주는 형태가 앞으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처럼 한국 방위산업이 NATO와 장기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조달'에 대한 니즈 해결이 필요**
- **향후 유럽 내 신규 무기 개발에 협력하는 방안도 다수 고려될 것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인드라가 체결한 스페인 자주포 공동 개발 MOU가 그 일환**

URL: <https://bit.ly/4pOmjs>

표2 스페인 K9 자주포 진출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스페인 차세대 포병 현대화 사업
내용	- 스페인 방산기업 Indra와 K9 기반 자주포 체계 공동 개발·생산 - K9 계열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체 차체를 설계·제조하고, Indra가 임무체계, 360도 상황인식, BMS, 통신체계 등을 통합
구성	155mm 궤도형 자주포 128 대, 탄약보급차 120 대, 지휘통제차 11 대, 구난차 21 대
예산	약 8 조원 (계약 체결 시 에어로는 약 2 조원 계약 예상(폴란드 Krab 자주포와 유사한 형태))
파급효과	- 남유럽 핵심 NATO 국가의 대형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첫 레퍼런스 - 한국산 완제품 직수출이 아니라 현지 설계·관련 기술이전·현지생산을 결합한 유럽형 수주 모델 - 남유럽 국가 추가 진출 기대감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F-21은 항공·방산 묶은 플랫폼...미래형 전투체계 수출 이끌 것"

- KF-21은 9월 말 공군에 총 2대 인도되며 연말까지 8대, 2028년 40대, 2032년 120대 등으로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 예정
- KF-21은 임무체계와 데이터 링크, 무장 통합 능력을 우리가 주도해 발전시킬 수 있음
- 실전 배치 후 수출 기대가 커졌는데 해외 고객은 해당 국가가 전투기를 실제로 운용하는지, 가동률은 어떤지, 정비비는 얼마나 빨리 되는지, 부품은 제때 공급되는지, 조종사와 정비사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특히 중동 국가는 '한국 공군이 실제로 쓰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음
- 미국의 F-16, 라팔 emd 기준 4~4.5세대 전투기는 40년 전 구축해놓은 플랫폼을 개량해온 반면 KF-21은 훨씬 나중에 나온 기체
-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가 (F-35 등) 고가의 5세대 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할 수는 없으며 이런 국가에 KF-21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

URL: <https://bit.ly/4h3qkaE>

한화에어로, 美 자주포 현대화 7월 첫 관문

-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가 제안한 차륜형 자주포 K9MH가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SPH-M) 사업의 막판 평가를 받고 있음
- 미 육군은 이르면 7월 시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
- 미 육군은 노후화한 155mm M777 견인포를 차륜형 자주포로 바꾸는 SPH-M 사업을 추진
- 사거리연장 자주포(ERCA) 개발을 접고, 대규모 신규 개발 대신 검증된 기성 장비를 신속 도입하는 쪽으로 전략을 틀었음
- 미 육군은 2024년 10월 한화디펜스USA, 아메리칸 라인메탈, BAE 보포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엘빗 시스템스 5개 업체와 성능 시연 계약을 맺은 뒤 후보를 좁혀옴
- 시제 계약은 이르면 7월, 양산 물량을 가를 최종 사업자 선정은 2027년 이후로 예정
- 한화디펜스USA가 내놓은 K9MH는 주력 자주포 K9 계열을 기반으로 한 차륜형 모델
- 사업이 본격화하면 한화시스템과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플랫폼 납품을 넘어 포탄, 장약, 사격통제, 지휘통제체계를 묶은 통합 포병 솔루션을 앞세움
- 세계 궤도형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K9 계열이 미국 본토까지 영역을 넓힐 분수령이 다가오고 있음

URL: <https://bit.ly/4ymDp5e>

글로벌 방위산업 주요 News

당사 의견은 기울임체로 표시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방공망 취약점 정보 수집하던 러시아 스파이 조직 적발

- 이탈리아 수사관들은 로마에서 활동하던 간첩 조직을 적발한 후 러시아가 유럽에 있는 자사 스파이에게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공 능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 이탈리아에서 러시아 군사정보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정보원에게 심문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도청한 경찰은 그가 키이우에 제공된 유럽의 SAMP-T 시스템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개발해 11월 우크라이나에서 시험 가동 예정인 미켈란젤로 돔 방공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들음
- 디펜스 뉴스(Defense News)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로마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군사 무관이었던 아스타코프는 비밀 회의에서 피라스에게 상관들이 요청한 정보 목록을 전달했고,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SD 카드를 받아 벽에 뚫린 구멍에 넣어두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수사관들에 따르면 러시아인은 정보 패키지 하나당 현금 4,000유로(4,600달러)를 지불
- 이러한 요청들은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려는 의지를 보여줌
- 목요일, 이탈리아 정부는 아스타코프를 포함해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군사무관 두 명을 추방한다고 발표
-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의 방공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

URL: <https://bit.ly/4bjToHc>

표3 러시아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주요 군사 행동 타임라인

시점	국가	내용
2024.09.08	루마니아/라트비아	러시아 드론이 자국 영공 침범 후 추락
2025.08.31	불가리아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탑승 항공기에 GPS 교란
2025.09.09	폴란드	24 대의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 진입
2025.09.13	루마니아	러시아제 '게란' 드론의 영공 침범
2025.09.13	에스토니아	러시아 MiG-31 전투기 31 대 핀란드만 상공에서 12 분간 에스토니아 영공 진입
2025.09.22	덴마크/노르웨이	공항에 드론 출몰로 오슬로/코펜하겐 공항 몇 시간 동안 폐쇄
2025.09.22	프랑스	북서부 군 기지(우크라이나군 훈련 장소) 드론 출몰
2025.09.27	프랑스	생나제르 앞바다에서 러시아 유령선단 유조선 보라카이호 나포
2025.09.29	독일	북부 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상공 드론 무리 목격
2025.10.03	독일	원형공항 상공에 드론 무리 목격으로 운항 7 시간 전면 중단
2025.10.03	벨기에	엘젠보른 군사기지 근처 정체불명 드론 15 대 비행
2025.10.04	리투아니아	빌뉴스 공항에서 풍선 발견되어 영국 폐쇄와 항공 교통 일시 중단
2025.11.02	벨기에	북동부 클라이네 브로겔 공군기지(미국 핵무기 배치된 기지) 상공 드론 3 대 비행
2025.11.02	독일	브르멘 공항에서 드론 발견되어 1 시간 운항 중단
2025.11.15	폴란드	바르샤바 루블린 철도 노선에서 폭발·선로 훼손 발생
2025.11.19	루마니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인프라 공격 중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 침범
2025.11.20	리투아니아	벨라루스발 밀수 풍선·기구가 반복적으로 영공과 공항 운항을 방해
2025.11.25	루마니아-몰도바	러시아 드론 루마니아 침범, 몰도바에 드론 6 대 영공 침범
2026.05.13	리투아니아	빌뉴스 공항이 벨라루스발 풍선 의심 물체로 약 1 시간 운항을 중단
2026.05.15	핀란드	헬싱키 공항 인근에서 드론 의심 활동이 발생해 공항 운항이 약 3 시간 중단

자료: 언론 보도 종합,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스페인 공격 및 그린란드 요구...나토 정상회담에서 균열 드러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요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페인과의 무역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재개하면서 회의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이는 또 다른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함
-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연설하며 마드리드를 나토의 "끔찍한 파트너"라고 부르고, 이란과의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맹렬히 비난했으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하라고 지시
- 워싱턴과 마드리드는 오랫동안 대립해 왔으며, 스페인은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자체 방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
- 마드리드의 사회당 지도부는 또한 미국이 이란 전쟁을 위해 자국의 영공이나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음
-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덴마크의 반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요구하며, 냉전 초기부터 서방 안보의 기반이 되어 온 동맹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해 온 문제를 다시 제기
- 그는 "그린란드는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덴마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며 "사실 덴마크가 나치에게 하루도 채 안 되어 점령당했을 때, 히틀러가 하루 만에 그들을 물리치고 점령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그린란드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그린란드를 차지했다가 어리석게도 다시 돌려줬다"고 말함
-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그린란드는 양보할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

URL: <https://bit.ly/4wCOP2U>

미국,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강화 위해 베이루트에 조사단 파견

- 미국 군사 대표단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분쟁 종식을 위한 합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레바논에 도착
-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에 여러 차례 직접 회담이 진행된 끝에 6월에 체결된 합의는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레바논에서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킴
- 이번 합의는 레바논 군이 비국가 무장 단체들의 "검증된 무장 해제"를 전제로 궁극적으로 남부 지역에서 유일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 그러나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무장 상태를 유지하는 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른바 안보 구역에 주둔할 것이라고 공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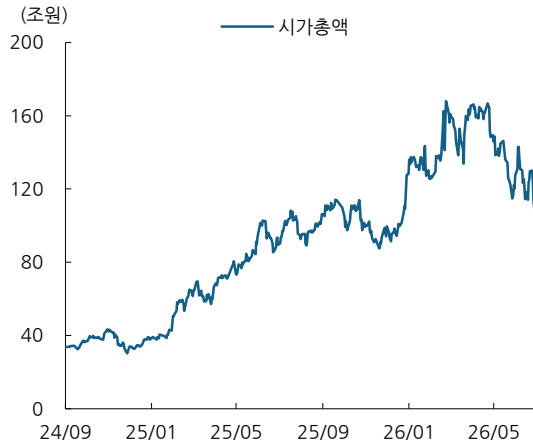
URL: <https://bit.ly/4vTVOVe>

록히드 마틴과 라인메탈, 독일에 유럽 최초의 ATACMS 생산 센터 건설 착수

- 록히드 마틴과 라인메탈은 유럽 내 현지 생산 탄약에 대한 즉각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계획된 합작 투자는 나토 및 유럽 동맹군 전반에 걸쳐 ATACMS(전투 공격 및 방어 시스템)의 제조, 통합 및 유통을 위한 최초의 유럽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
- 양사는 유럽에서 ATACMS 미사일을 공동 생산하는 것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국의 역지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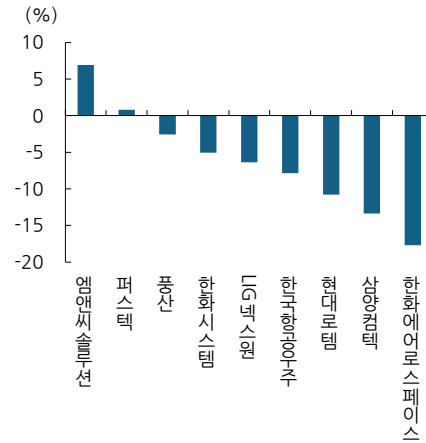
URL: <https://bit.ly/4beznSI>

그림7 방산 5사 합산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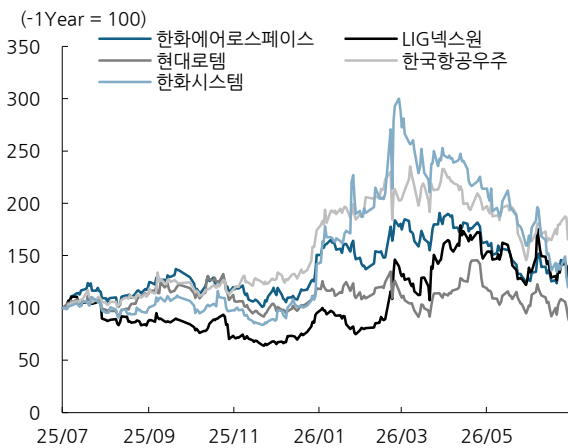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방산 주요 기업 1W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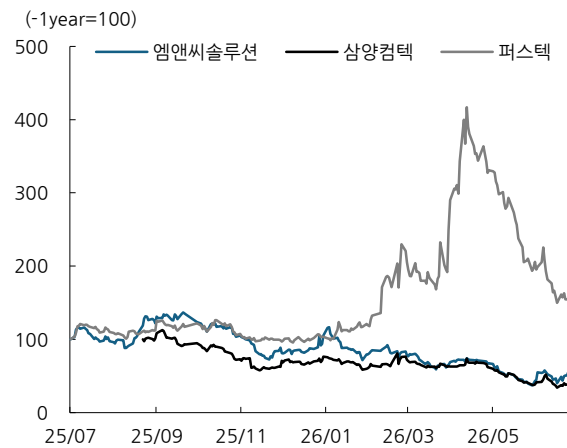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방산 5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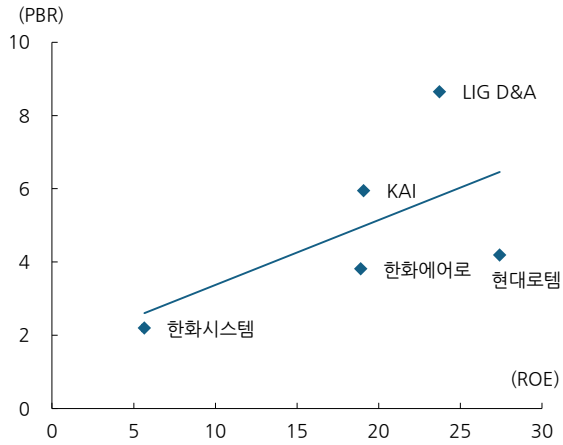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방산 주요 부품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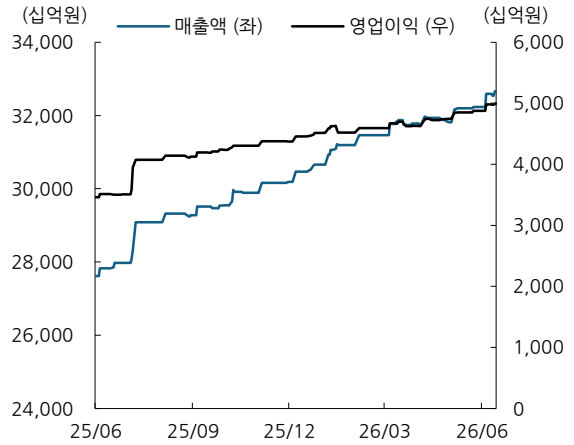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방산 5사 12M Fwd PBR-ROE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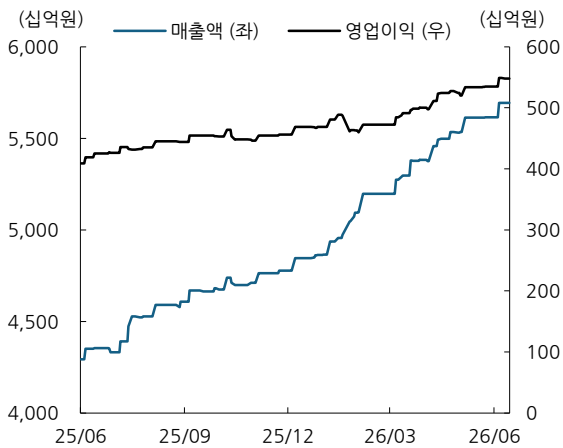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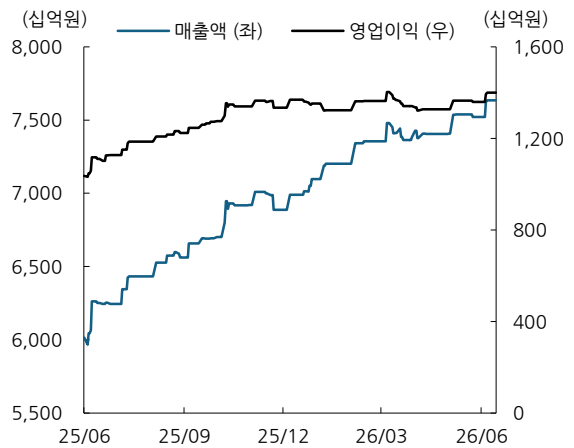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LIG D&A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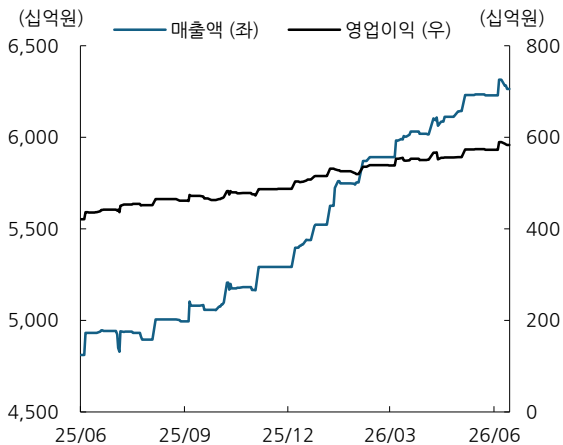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현대로템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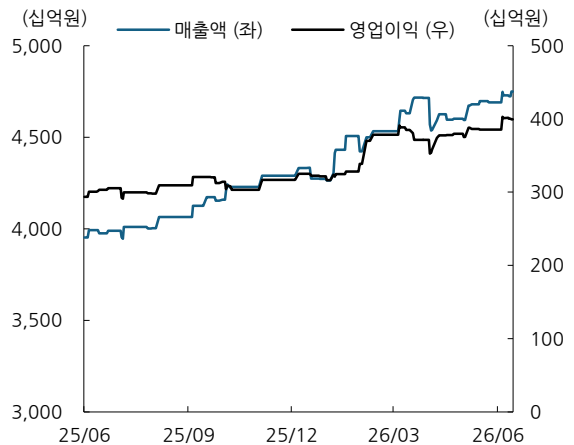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한국항공우주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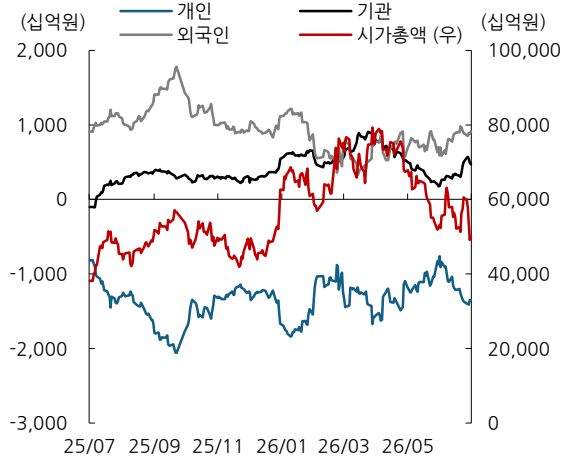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한화시스템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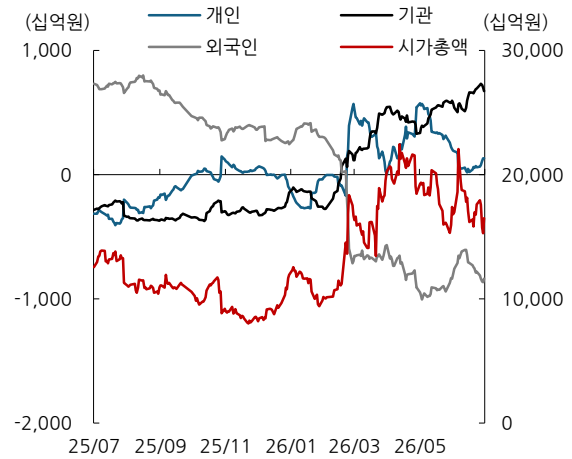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한화에어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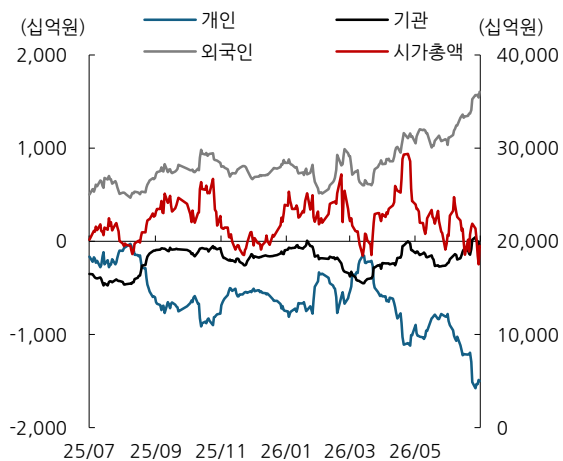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LG D&A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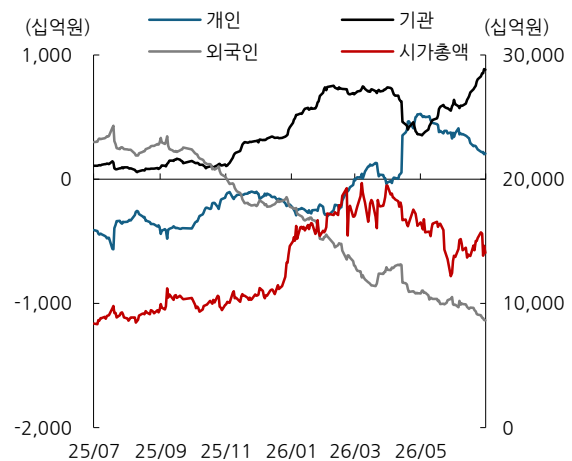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현대로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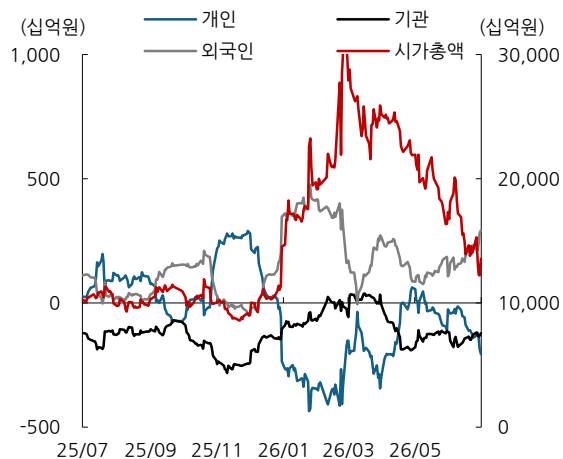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한국항공우주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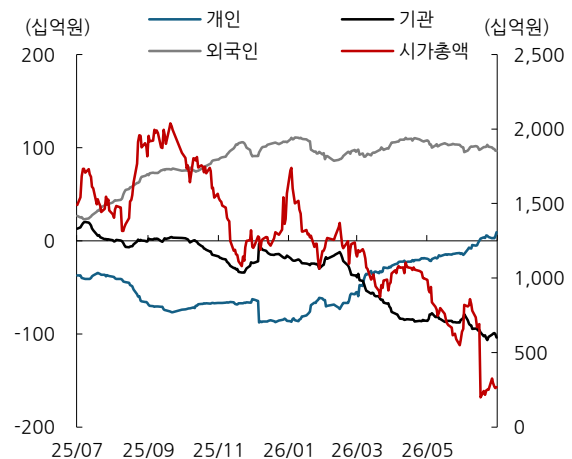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한화시스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엠앤씨솔루션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